제272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8. 2. 5 (1)

연중 제5 주일
(출판물 보급 주일)

기도서 P. 342 A해
1독 (이 사 58, 7—10절)
2독 (고 린 전 2, 1—5절)
복음 (마 태 5, 13—16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강 론□

「빛이 되기 위해서」

현 유 복 신부

"향수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가게를 나왔을 때는 향수 냄새가 나고, 피혁가게에 들어가 피혁을 사지 않더라도 아주 몹쓸 냄새가 몸에 밴다"란 말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옵니다. 아직 천사도, 동물도 아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따라 향기를 피우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몹쓸 냄새를 피우는 동물도 될 수 있다는 말이겠읍니다. 또한 공자도 일찌기 "仁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마침내는 어리석어진다."(好仁不好學, 其蔽也愚)고 하여 사람은 본시 仁道를 즐기려 하지만 배우지 아니하고 識見도 넓히지 아니하면 그 仁의 행위는 마침내 情에만 치우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만다 하였읍니다. 더우기 우리는 날로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진로(進路)를 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지닌 크리스챤으로서 사랑과 겸손을 갖춘 적극적이면서도 투쟁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 입니다. 작년 이 때에도 우리는 교회서적을 보급하고 읽자고 다짐하였으리라 기억됩니다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셨는지요? 생존경쟁과 심각한 생활고(生活苦)로 밤낮을 뛰어야 하는 현실속에서 불티만한 신앙을 키워나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반성과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한 오늘날의 교회는 날로 그 세력이 광폭(狂暴)해지는 세상의 惡 앞에 우리들의 무장된 신앙생활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좀더 용기와 겸손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인 서적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죽음과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과 희망에 찬 생활을 보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해야겠읍니다. 참으로, 진리의 빛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와 기도가 필요한 때 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이며 교회의 목소리인 교회 출판물에 대해서 "만일 교회 출판기관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황으로서의 제의(祭衣)와 지팡이와 가구(家具)까지라도 팔아서 바치겠다"고 말씀하셨던 교황 비오 10세의 애절한 뜻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출판물의 보급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惡의 공해 속에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팔마 천주교회 보좌신부)

올라라, 높이 올라라.

우리에게는 오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국민소득도 오르고, 수출액도 오르고, 특별히 물가도 오르고 있다. 걸맞지 않게 오르고 있는 것이 물가임에 틀림없다. 당국은 1년에 10%선을 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 가정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은 누가 뭐래도 엄연한 현실이니까.

숲정이의 요십이는 지난 주 만화에서, 15년 후엔 1인당 소득이 7천 7백 달러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요십이도 15년 후에는 애기 아빠가 된다는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어린 요십이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진짜로 올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값이다. 하느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떤이는 조권(鳥權)도 보호하고 목권(木權)도 지켜지는데 유독히 인권(人權)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을 어떻게 알아 들어야 할 것인가?

이번 주간부터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된다. 인류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 값을 찾아 주기 위한 죽음이였다. 우리는 금년의 사순절에는 고통 받는 인간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물가보다도 더 높이 오르고 있는 사람값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들을 깨워줘야 하겠다.

구정을 전후해서 어린이들은 연을 날린다. 하늘 높이 오르는 그 연에 우리의 소망을 띄워보자.

숲정이 산책

□ 사제 양성 후원 사업 ▣

기도하고 봉헌합시다

오늘 우리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이라는 중대한 사업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그 해결책에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히는 시점에 서 있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송두리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읍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사제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봉사하며, 성무를 집행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사제들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무언가 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사제들을 양성하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그 기금을 모아 보았읍니다. 그 결과로 7백 14만 7천 2백 77원이 모아졌읍니다. 3년여에 걸친 실적으로는 조금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시해본, 사순절에 각 가정에서, 나누어진 저금통에 봉헌을 한 결과는, 첫해임에도 4백 45만 4천 9백22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사실 사제에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일생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 양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읍니다. 그러하기에 사제성소에 응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더우기 일생을 사제로 봉사하다가 건강때문에 은퇴하여 정양하시는 사제들이 넉넉한 가운데 여생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도 사제성소에 응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사제를 만들어내기까지에 필요한 경제적인 후원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구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제를 제대로 양성해내지 못한 때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사제들이 더욱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이 막힌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7년동안에 39명의 새 사제를 탄생시키는 기쁨도 맛보았읍니다. 작년에는 5명의 사제를 외국에 보내 공부시킬 수 있는 즐거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신학교 입학생이 하나도 없읍니다. 소신학교에만 7명이 입학했읍니다. 금년도 교구 총 예산 8천만원 가운데 22%의 예산이 신학생들(9백 50만원)과 은퇴 신부님들 (8백 10만원)을 위해 쓰여지는 어려움까지도 사제양성이라는 기쁨으로 대신하고 있읍니다만, 사제성소가 감퇴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시대가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제가 요구됩니다. 세상의 급속한 변천은 특수사목(노동자, 농민, 학생, 특정 직업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수사목)에 전념할 수 있는 사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여러 곳에 서야 합니다. 큰 본당에서 형제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사제가 요청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사제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일은 달리 말해서 우리 자신이 사제성소에 응하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나의 젊음을 하느님께 바쳐 그리스도가 걸으신 사제의 길을 걷는다는 일이 얼마나 크리스챤다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길인가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뛰어듭시다. 또한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에게 그러한 성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소가 내 자녀에게 있다면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아울러 일생을 바치신 은퇴 신부님들과, 현재 사목에 전념하는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둘째,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하는 대신에 물질적으로 우리의 정성을 바칩시다. 어려운 살림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조그마한 정성을 바칩시다. 넉넉한 형제 자매들은 더 큰 정성을 바칩시다. 항상 하루 하루를 지낼 수 있음을 하느님께 감사하며, 내 자신을 사제의 길에 바치는 대신 물질적으로 봉헌합시다. 우리 교구 신자가 6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 해의 사순절 성금은 신자 1인당 75원 꼴 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신자 한 사람이 이 좋은 사업을 위해 사순절 동안 매일 10원씩은 봉헌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매일 100원, 더욱 여유가 있으면 매일 500원씩은 봉헌합시다. 하루에 10원씩만 봉헌한대도 사순절 동안 우리 교구에서 모아질 수 있는 정성은 2천 4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만큼 좀 더 봉헌한다면 3천만원은 거뜬히 모아지겠읍니다 어린이들도 군것질을 줄이고, 세배돈도 모아서 함께 참여합시다.

오늘 각 가정에 나눠지는 저금통이 부활 대 축일에 영원한 대 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봉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M°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율리안나)
☎ ② 4451 풍년제과 분절앞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리 경 문 학 원
⊙이리역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출판물보급주일 □

오 늘 의 소 리

서 레지나 수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홍보수단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듯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각종 홍보매체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교회는 이 홍보매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홍보주일과 출판물 보급주일을 설정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1971년 교황청 매스콤 위원회는 홍보수단에 관한 사목훈령을 반포하여 각 매체들이 오늘의 세계안에서 일치와 발전에 한 수단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한 부분인 출판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있다.

「출판물은 그 본질과 특성 때문에 매우 중요시된다. 출판물은 신축성있는 다양성과 풍부한 내용을 포괄하므로 사건의 상세한 부분과 이유를 광범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탐구심을 자극한다. 다른 시청각적 홍보수단을 보충하여 사람들에게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을 길러 주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놀랍게 인간의 사고력을 길러주므로 사회의 대화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도구로 등장한다. 더우기 오늘날 종교적 문헌, 각 민족의 문학적 고전, 기술과 학문의 연구 결과, 특히 마음의 휴식을 위한 독서물들이 서적과 소책자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다. 만화와 그림 이야기들은 성서나 성인행적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일치와 발전 136조〉

이와 같이 출판매체는 선교사도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는 수도회의 보호자 성바오로의 말씀대로 만일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것입니다 (고전9, 16).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 10, 16), 라는 말씀대로 매스콤의 사도로서 일하며 성바오로 서원을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닿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지난 한해도 전주 시내의 각 고등학교 13개와 회사 4개를 방문하여 전전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2,116권의 책을 보급하였다. 해가 갈수록 희망적이고 밝은 전망이다. 지난 한해 전주 성바오로 서원을 통해 보급된 서적의 분류별 보급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례서 11,764　사회 교육학 1,287　교리서 4,585　청소년도서 1,676

철학 신학서 880　아동도서 1,068　문학 교양서 8,496

잡지 (경향, 소년, 사목, 전망, 샘터) 885　성인 묵상서 2,491　합계 33,132

「가톨릭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가톨릭 출판물을 구독해야 한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교회의 온갖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 하며, 가톨릭 출판물의 해설을 통하여 참된 크리스챤 정신을 배양해야 하겠기 때문이다.」〈일치와 발전 140조〉

또 지난해 출판사별 신간 출판수를 본다면 분도 출판사 20종, 가톨릭 출판사 22종, C.C.K. 11종, 성바오로 출판사 18종 기타 연구소 5종 합계 76종이다.

이 교구안에서 신부님들의 사목생활을 보조하며 함께하는 우리들도 열심히 뛰겠지만 크리스챤으로 불리움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의식하면서 홍보매체로 혼탁해진 사회안에서 선과 진리로 정화될 수 있는 교회 출판물을 먼저 읽고 보급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야 하겠다.

〈성바오로 서원〉

☆ 교우님들의 협조를… ☆

문 의상실

문 정 실(세시리아)

☎ 군산 6224

군산시 죽성동 영동 파출소 옆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타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 모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 2월 1일－2월 28일

주　소 : 전주 중앙성당 내

전　화 : ③ 6669, ③ 387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타◎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킬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난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②8342

군산 청과시장 ☎ 3032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보다 뜻깊게 보냅시다. (2월 8일〈수〉…재의 수요일)
   ①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리는 돼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시다.
   ② 사순절 동안의 매주 금요일은 금육재를 지키는 날 입니다.
   ③ 재의 수요일 금육과 단식 관면 (2월 8일…구정 이튿날이므로 관면합니다)
2.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오늘 헌금은 전례서 및 교리서 편찬사업비로 충당되오니 전액 교구청으로 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3. 김제 와룡공소 건립위해 성금 기탁, 중앙 방지거 3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합회 임원 개선
   회장…이범수(프란치스꼬, 덕진)재임, 부회장…이덕근(요한, 주현동), 박복경(루시아, 중앙)
5. 인성회 세미나 (12일〈일〉 11—15시, 가톨릭 센타) 인성회 임원 및 봉사분과 위원장 연석
6. 가톨릭 학생회관 주소 (520, 전주시 덕진동 1가 1261의 6)
7.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 (12일 오전 10시—오후 2시)

□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6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센타)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목
보좌 신부 김 진 석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1. 프란치스꼬 3회 월례회 : 5일 오후 1시반, 강당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 7일 오전 6시반, 오후 7시반
3. 재의 수요일(8일) 단식과 금육 관면
4. 사순절 동안의 희생과 극기로 사제 양성에 협력합시다, 돼지 저금통 분배—선교분과 위원
5. 주일학교 개학 : 11일〈토〉 오후 3시
6. 예비자 교리 12일부터 시작, 시간표는 사무실에서 분배
7. 혼인성사 받으실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상의바람
8. 영세사진(77년 12월 10일) 찾아가세요(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 140,516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학생회 정기총회 : 공식미사후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오전 6시반, 오후 7시
   ※ 미사 예물은 내일까지 꼭 내주세요
3. 재의 수요일 예절 : 8일 저녁미사에, 성지가지 가져오세요
4. 십자가의 길 : 사순절 동안 매일 평일미사 후
5. 신용조합 정기총회 : 다음주
6. 축! 순결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탄생, 단장—이가타리나, 부단장—안말순, 서기—양희선, 회계—김귀례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사도회 확대회의 : 오늘
2. 교리교사 운영 찬조, 감사합니다! 강베로니카, 임로사리아, 임레지나, 권세시리아, 신헤레나
3. 구역장 : 덕진동—채순례, 금암동—홍정애, 팔복동—김정규, 송천동—김인철, 각 반장 덕진 1~7 유정순 이주연, 신영숙, 박금순, 전 명, 김지연, 김영애, 금암동 1~4 박명순, 박춘자, 최덕례, 서정옥, 팔복동 1~4반 서임석, 이정애, 김옥자, 서군자
4. 부녀회 : 회장—유정순, 차장—전명, 서기—박춘자, 회계—신연숙
   ※ 구역장 및 각 반장 총회 : 10일 어머니 미사후
5. 교리교사 : 이범수, 서재성 조찬님, 유아라 (신임)윤영숙
6. 학생회 : 회장—박춘현, 부회장—차현규, 주영란
7. 구정 합동 위령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원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복자 부녀회 정기총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3.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조성호 형제댁
4. 구정 합동 위령미사 : 7일 오후 7시반
5. 재의 수요일(단식·금육 관면) 미사 : 오후 7시반
6. 정성어린 성미로 보속합시다
7. 공동체 성가연습 : 공식미사 전, 사무실에서 구입
8. 학생회 임원개선 : 회장—신정엽
   부회장—신완기, 박경민, 총무—송재수, 장미원, 성화부—이홍식, 장미원, 미화부—최성수, 김정자 체육부—김만호
9. 특별헌금 감사! 구세주의 모친—톱밥(3천원)
10. 신용조합 제3차 정기총회 : 19일 오전 11시반, 강당

□ 지난주 봉헌금 : 149,2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사도회 월례회 : 10시미사 후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 7일 저녁 7시
3. 학생회 임원개선
   회장—박준기, 부회장—유동근, 최경덕
4. 주일학교 개학 : 11일〈토〉 오후 3시
5. 주일학교 아동 가정방문
6. 2월중 반상회 없음

□ 지난주 봉헌금 : 40,401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설날 합동 위령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3.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 특별헌금 있읍니다
4. 재의 수요일, 단식·금육 관면
5. 진북동 반상회 : 1동(7일), 2동 2반(9일), 2동 6반(11일)
6. 작년도 교무금 미납분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9,98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유 종 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사도회 임원회(동반포함) : 저녁미사 후
2. 성화회 : 10시 미사 후
3. 유아세례 : 오늘 2시 미사 후
4.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오전 6시, 10시, 저녁 7시 예물—가족별 봉헌, 미사전까지
5. 구정 단체 척사대회 : 설날 밤 미사후, 유치원 단체—장우·자모·성화·성가정·성가대·성서동지회 교리교사회, 시상 1등(1만원), 2등(2조 5천원)
6. 학생회 총회 : 오늘 9시 미사 후
7. 성자 시범 Cell : 오늘 오후 3시, 사제관
8. 애령회, 장례 제반 절차 책임

□ 지난주 봉헌금 : 145,350원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 ③ 3272